

이렇게 들었다

DNA와業

생명현상의 엄정한 인과법

"세계는 업에 따라 존재하고, 사람도 업에 따라 존재한다. 수레바퀴가 쇠기에 얽혀 굴러가듯이 생존하는 모든 것은 업에 속박 당하고 있다." <수타니파타>

불교사상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업' 사상을 함축하고 있는 부처님 말씀이다. '현재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조건은 과거 업의 소산이며, 현재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미래의 업을 정한다'는 사상이다. 눈으로 보는 것, 마음으로 느끼는 것 등 정신적 육체적인 행위 모두가 업의 요소가 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유전자 검색기술을 이용해 미아찾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DNA(디옥시리보핵산, 유전자)와 업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아뢰아식(아뢰아식)의 상관성을 생각해 보게 된다.

'현대과학의 최대 발명은 컴퓨터, 최대 발견은 DNA구조 규명'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DNA는 모든 생물의 생명현상을 지배하는 유전자의 본체다. 돌연변이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지 않으며, 생명체의 속성을 규정하는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아뢰아식에 비견된다.

인간의 마음(識)의 상태를 여덟 가지의 단계로 설명하는 유식론에서 제8 아뢰아식(藏識, alaya-vijnana)은 가장 근본적인 의식으로 지칭된다. 제7 말나식에 의해 상주불변의 자아로 착각, '집착' 되는 이 아뢰아식에 습기(習氣, vasana)의 형태로 종자(種子, bija)가 저장 되어 아득한 옛적부터 성불에 이르기까지 이 식의 흐름이 결코 단절되지 않는다는 이른다. 물론 아뢰아식에 저장된 종자는 DNA 속의 유전자 정보와 같은 단순한 생리학적 저장물은 아니다. 그것은 '특수한 정신적 힘, 에너지(功能差別)로서, 정신현상의 주체와 작용이 발생·존재하게 하는 원동력으로서 윤회를 겪고 해탈을 이루는 주체로서 차별성이 있다.'

"온갖 중생은 제 번뇌로 지어진 업에 의해, 그 몸과 사는 세계를 스스로 만들어 간다. 하나하나 제 몸과 사는 세계와 수호해 지니는 것을 스스로 이루는 현상이, 업을 제쳐놓고 다른 무엇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화엄경>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도덕적으로 나쁜 일이 아니라면 적당히 규칙을 어겨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늘을 속이고 땅을 속인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없다. 만약 그런 일 하더라도 마음에 깨끗직한 구석이 없다면 아마도 양심이 마비되어 가는 사람일 것이다.

머리카락 하나에도 부자간의 비밀을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간직하고 있는 DNA.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일들을 빠짐 없이 저장하는 아뢰아식을 연상케 하기에 충분하다. 하루하루를 별 생각없이 무심코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엄정한 인과의 법칙은 일상의 반듯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스타' 좇는 청소년 '올바른氣 살리기'

불자세상보기

어느 시대인들 신세대가 기성세대를 '놀라게 해 주는' 재주꾼 한 번씩 보여 주지 않은 때가 있었을까. 20세기만 큼 청소년들이 기존의 상식을 깰고 뒤엎으며 전혀 낯선 것을 끊임없이 가져와 어른들과의 충격적인 '차별'을 계속 선언한 적은 없다.

옛날 타령을 좀 하자면 농경시대 패션에는 거의 변화를 느낄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한 세기의 패션은 거의 모든 스타일이 선보이며 어지러운 바람을 한 번씩 일으키고 지나갔다. 지난 10년간 따져도 청소년들은 내의가 들여다보이는 초미니 스커트나 핫팬티로 보는 이들을 민망하게 하거나 바짓가랑이를 길게 늘어 그 바지 아랫단을

로 길거리의 먼지를 휩쓸고 다니는가 싶더니 드디어는 머리카락을 노랑 빨강 초록 보라 등으로 물들여, 기괴함마저 보여주기 시작했다. 기성세대도 지난 한 세기의 어지럼증에 이제 얼마간 면역이 생겼는지 컬러풀한 머리 색깔 등 패션의 변화에 지금은 그다지 큰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 해도 도무지 이해가 곤란한 것은 그런 유행에 민감한 청소년들이 인기 스타들을 무리 지어 따라 다니며 괴성을 질러대고 기절하고 그러다가 죽기도 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도 '클릭 B'라는 남성 7인조 보컬그룹을 무리져 환호하며 따라 다니던 여학생 한 명이 쓰러져 죽었다는 소식이 있었다.

자기안에 '나' 아닌 '허상' 채워 자기상실 '마음다스리는 법' 어른들 모범보이지

'서태지와 아이들'이 은퇴한다고 했을 때 이를 막아 보겠다고 자살예비군까지 마련했던 팬클럽이며, 유명 외국 가수 공연에서 '무더기 기질'로 가수의 인기를 증명해 보였던 '극성 팬 현상'은 분명 20세기 한국 사회의 어지러운 변화상의 하나였다.

그런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기 자리'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나'라는 존재

는 인기스타에 매몰되고, 그런 '나'를 되돌아볼 시간마저 박탈당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자기 안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채우는 것은 미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허상을 좇는 것이다. 자기를 빼놓고 무엇을 찾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이런 모습은 우리사회의 '자기상실'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결국 우리 모두의 공업(共業)인 셈이다. 여기에는 분명 원인이 있을 것이다. 진부한 지적일 수도 있겠으나 첫째 원인은 TV 등 대중매체들의 역기능적인 면과 각종 상업주의의 교묘한 전략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TV나 인터넷 비디오 등 영상정보매체가 지배하는 이 시대에 청소년들의 관심은 매체에 보다 많이 등장하는 스타나 그밖의 유명인사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



김장자 칼럼니스트 본지 논설위원

또 하나의 원인은 아이들의 기(氣)살리기에 서 찾고 있다. 20세기 한국의 교육은 자녀들의 기(氣)살리기에 있었다. 극성 팬 신드롬은 청소년들의 필필 살아있는 그 기(氣)의 한 단면을 보여 준다. 우리는 청소년들의 '기 살려 주기'에는 성공했어도 스스로 '기'를 어떻게 통제하고 좋은 방향으로 살려 나갈 수 있는가는 가르쳐 주지 못했다.

기(氣)는 펄펄 뛰면서 기(氣)의 한 단면을 보여 준다. 우리는 청소년들의 '기 살려 주기'에는 성공했어도 스스로 '기'를 어떻게 통제하고 좋은 방향으로 살려 나갈 수 있는가는 가르쳐 주지 못했다. 기(氣)는 펄펄 뛰면서 기(氣)의 한 단면을 보여 준다. 우리는 청소년들의 '기 살려 주기'에는 성공했어도 스스로 '기'를 어떻게 통제하고 좋은 방향으로 살려 나갈 수 있는가는 가르쳐 주지 못했다.

열린마당

출·재가 위상 정립

"출가 세속화-재가 맹목성 경계"

수원스님 <조계종 총회위원>

한국불교의 출가 수행자들 대다수는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이 치열하게 수행진언만 몰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출가교단이 무수한 비판과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제의 식민 불교정책으로 인한 세속화와 타락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극복하려는 자정의 노력이 평화운동으로 1954년부터 전개되었으나 운동전개 과정의 문제점으로 더욱 나빠졌다. 이후 반복된 종권분쟁과 출가승단의 타락은 승가의 위상과 도덕성을 추락시켰다.

비승가적 분쟁과 도덕적 타락의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종권의 정통성에 대한 시비와 교단재산의 사유화를 들 수 있다. 종권의 정통성에 대한 시비로 해방이후 40여 차례나 분쟁이 야기되었다. 이와 같은 종권분쟁의 심화와 교단재산의 사유화로 인한 출가승단의 타락에 신랄한 비판자들은 교단개혁을 요구하게 되었고, 또 재가자의 교단운영 참여를 요구하게 되었다. 불법 승 삼보중 승보가 되는 자격

과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해탈을 목적으로 하는 출가수행자로서의 동일한 규율에 순복하며, 규율의 범위인 결계(結界) 즉 계율 내에서 존재해야 한다. 재가자 또한 삼귀의가 그 자격과 조건의 첫째가 된다. 출가수행자와는 달리 전문적인 수행보다는 최선의 도덕적 생활과 보시를 통한 교단 외호자로서의 역할이다. 부처님께서 행한 교화의 내용을 보면 그 위상과 역할이 더욱 명료해진다.

출가자가 수행진언과 교화의 본분에 충실하려면 세속적 소유욕에 더이상 집착해서는 안된다. 재가자들은 출가수행자들이 수행과 교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외호되, 특정 인(스님)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은 오히려 교단 질서를 어지럽히는 요인이 되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또한 교단재산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감시기능도 함께 행사해야 할 것이다.



"상호 신뢰 바탕 역할분담 모색"

박광서 <재가연대 상임대표>

최근 불교계에서 불교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구성원의 두 축인 출가자와 재가자 사이의 관계정립 및 역할분담에 관한 논란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출가자의 역할은 한마디로 '수행과 교화',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득하고 재가자나 일반대중들에게 가르치는 일이다. 따라서 최소한 출가자에게는 수행과 교화에 대한 원력과 함께 도덕적 권위가 요구되며, 수행과 교화를 소홀히 하거나 도덕적 권위가 훼손된 출가자는 '거룩한 삼보'로서의 귀의처나 공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반면 재가자는 출가자로부터 부처님 가르침과 출가자의 수행의 내용을 배우고 실천함과 동시에 출가자의 교화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도와야 한다. 특히 사회구조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부처님 정법의 울타리인 교단을 외호하거나 받쳐주는 일인 재가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나아가서 재가자에게 더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는 복지, 인권, 환경, 통일, 화합 등 중생구제 불사

를 폭넓게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해 보여야 한다.



한국불교의 출가와 재가의 관계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우선 출가자 사이에 상호 신뢰가 부족하다. 특히 출가자에게 집중된 권한과 책임에 비해 불교교단의 미래를 더 이상 출가자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팽배해 있다. 지난 반 세기의 교육부재와 상처 투성이의 출가교단으로는 효율적인 교화와 불교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재가자는 아직까지 출가자로부터 불교를 함께 이끌어갈 동반자이기보다 보시의 원천이나 동원의 대상으로밖에 대접받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다. 출가공동체의 고유하고 민감한 일부 사안을 제외한 교단운영 전반에 출가자가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적절한 위상정립과 역할분담을 진지하게 논의함으로써 재가 지도자들이나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할 때이다.

"출가 수행전념 재가 교단외호"

홍사성씨 '불교평론'에 기고

재가연대의 교단정화 운동이 교계의 핫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가의 출가 비판은 적절치 않다. 불교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신심의 발로라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출가와 재가의 바람직한 관계는 어떤 모양일까. 계간 <불교평론> 겨울호에서 홍사성 불교방송 보도본부장은 출가-재가의 바람직한 관계정립을 위한 시론을 내놓았다.

홍 본부장은 "초기교단에서 출가중은 수행에 전념하고 그 결과를 재가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임무였다. 재가중은 성심을 다해 출가교단을 외호하고 공양하는 것이 임무였고 역할이었다"고 밝히고 이같은 원칙을 현실화하기 위해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출가중의 역할을 수행과 교화로 전문화하는 것이다. 출가중이 이런 역할에만 충실한다면 종교적 권위는 물론이고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 자체가 달라질 것이다.

둘째, 사찰운영과 같은 세속적 업무는 재가중에 위임하는 것이다. 재물을 가까이함으로써 출가중을 세속화시키고 타락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셋째, 재가법사의 설립은 출가중 중심의 교단에서는 원칙적으로 적절치 않다. 반대로 불공이나 예불과 같은 공양 의식 집전은 오히려 재가자에게 허락하는 것이 옳다.

넷째, 재가중과 출가중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교환하는 기구를 만드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한다. 재가중의 의견수렴 장구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재가중의 중회 참여는 어불성설이다. 정성운 기자

중국 운남성에서 생산되는 보이차(푸어차)는 인체를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도우며 감비작용, 감기 예방등 일반적인 차의 성분과 효능을 두루 갖춘 순수 자연 전통차로서 발효기간이 오래될수록 맛이 부드럽고 깊어지는 중국 명차이다. 이 책은 동시해(鄭時海) 교수의 "보이차(푸어차) 원문을 한 글로 번역, '보이차의 종류 및 보이차란 과연 무엇인가'를 명쾌하게 풀어 놓은 책이다.

『에 차마다 진기(陳記)가 30년 50년 등을 반드시 그 차의 연도가 꼭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보통 해당차 생산기간이 짧게는 5년 길게는 수십년 같은 제품을 생산하게 되므로 진기의 계산은 대략 기준 년도에서 몇년 째을 수도 있고 몇년 걸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푸어차를 애호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그 차의 연도에만 현현할 것이 아니라 자기 성품에 맞는 차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차는 결코 사람들에게 거품을 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전해 주지만 다만 사람들이 차를 잘못 이해하는 수가 있다"고 스님과 차를 나누는 자리에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실로 훌륭한 명차(名茶)는 돈과 명예, 권력이 있다고하여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차 스스로가 자기를 일러주는 사람 을 찾아간다고 믿고 싶습니다.』

- 역자 서문 중에서 -

목차
제1장 史話篇 제2장 陳香篇
제3장 品質篇 제4장 茶藝篇
附錄 푸어차의 의학적 증명
附錄 용어해설

지은이 : 동시해(鄭時海)
옮긴이 : 김동희(許有)
발행처 : 도서출판 대우문화사
값 : 50,000원

“보이차”
[중국운남 진년 푸어차]

판매처 : 푸어명가(普洱名家)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84-1 우삼빌딩 1층
전화 : (02) 544-9649, (019)553-3013 팩스 : (041)531-3986

氣(마음)와 영혼의 신비한 세계 ※ 본인들의 의식수준에 한해 개별적인 영기전도 능력 전수기 가능함

모습없는 모습으로 대문 사람들

원장 윤정주 저서

진여(眞如) 氣 수련원

우리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초월된 정신세계에 관한 아름다운 체험 이야기로 그려 뛰어난 아름다운 마음의 묘법을 누구든지 소유할 수 있다는 이치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밝혀놓은 도깨비방망이 같은 책입니다.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도서출판 유림 전화 : 02-736-7148, 723-3856
팩스 : 02-736-7148

"불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미기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약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 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뵈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밑 불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살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한 약재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약재를 탕재로 하여(한박스 60포) 한달분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게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이며 풍에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하여 피로를 제거한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공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과 당뇨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숙취를 해소한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463번지
중미산 불심정사 전화번호 : (031) 771-1571

보시금은 불심정사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정강대진장